

서울 장학금 지급 내역 발표

교내 장학금 작년 보다 4억8천만원 늘어 1천9백여명수혜

서울캠퍼스 학생처는 92학년도 1학기교내·외 장학금 지급 현황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교내 장학금은 작년보다 4억8천3백39만9천500원 늘어나 총 12억9천5백99만3백500원이며 수혜자는 작년보다 3백11명 증원된 1천9백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92학년도 입시에서 고득점자가 대거 입학하여 입시장학금이 작년 1학기보다 4억2천4백91만7천원 늘어났고 등록금과 더불어 각 학과별 장학금이 18%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교내 장학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은 수혜인원
△총장장학: 1백22만7천6백원 (1명)
△임시장학: 5억3천5백39만3

천6백50원 (3백80명) △생활보조비: 48만원 (1명) △보통장학: 6천5백2만3천9백75원 (1백3명) △경회가죽장학: 5천6백33만9백원 (45명)

수원 총 예협 선거 오는5일 체과대 시청각실서

수원캠퍼스 '제2대 총예비학생협의회' 회장 선거가 오는 12일 체과대 시청각실에서 오후5시 30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단독후보인 신상호(서반아어·3)군의 유세를 병행,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선거인단은 신철학과 3개과와 산업디자인학과를 제외한 33개과

명) △우정장학: 2백81만8천원 (5명) △체육실기장학: 1억3천1백29만7천9백50원 (1백10명) △고시A장학: 9백87만6천원 (10명) △

고시B장학: 2천만원 (40명) △음악실기장학: 3백9십만원 (13명) △미술실기장학: 1백8십만원 (6명) △화군단: 1백2십만원 (4명) △모범B씨를장학: 6백만원 (30명) △

장학실기장학: 7천6백77만4천7백25원 (1백77명) △우수A: 1억1천4백6만7천5백50원 (1백8명) △우수B: 8천8백7십만원 (2백22명) △모범A: 7천4백8십만원 (2백52명) △모범B: 7천3백3십만원 (3백73명) △

스스로장학: 3천3백만원 (1백10명) △중점학생장학 장학금액과 수혜인원을 단대에 배정하면 것을 장학금액만 배정하고 수혜인원은

단대특성에 맞게 학장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대외 장학금은 4월17일 현재 한국장학, 장수장학 등 72개 재단에서 3백87명에게 총3억1천6백37만8천3백25원 지급됐다. 이는 작년 1학기과 비교해 볼때 수혜인원은 15명, 금액은 2백86만2천5백원 늘어난 것이다.

한편 대외 장학금은 4월17일 현재 한국장학, 장수장학 등 72개 재단에서 3백87명에게 총3억1천6백37만8천3백25원 지급됐다. 이는 작년 1학기과 비교해 볼때 수혜인원은 15명, 금액은 2백86만2천5백원 늘어난 것이다.

입학과 연습실 실습 지난10일부터 경기도 광주서

산업대 입학과는 지난10일부터 4박5일간 경기도 광주 피촌에서 춘계 연습실 종합실습을 실시중이다.

이번 실습에서는 3학년 42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토양비료학, 육

요학등의 실습을 하게 된다.

천문대를 7월말 완공 예정

미장 및 전기설비 공사 남아 국선관은 8월말 완공

국선관 굴조공사와 천문대 마감공사의 진척도가 4월말 현재 각각 28%,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국선관은 올 8월말 완공예정으로서 5월말경부터는 굴조공사와 조적, 미장, 방수등의 내장공사를 병행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천문대는 7월말 완공예정으로서 앞으로 수장과 미장, 방수공사가 남아있으며 전기, 설비는 완공될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공대 중앙기기 센터에 있던 기계공학과 제도실이 강의실로 용도가 변경되고 새로 설립된 육상에 49평 크기의 제도실을 설치하여 다음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복위 폐휴지 수거함 설치 수익금 학생복지에 사용

서울캠퍼스 인복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학내에서 무절제한

게 버려지는 폐휴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번 주 중 폐휴지 수거함을 각 단대마다 설치할 예정이다.

수거함에 적합한 폐휴지는 담담 아르바이트생에 의해 매일 2회 재활용 공사로 운반되며 이것에 따른 수익금은 학생복지에 사용한다.

이번 폐휴지 활용을 준비한 인복위원장은 장현진(경제·4)군은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단대 학생회가 일반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세계 노동절기념 행사 개최

지난 2일 한양대서 ILO 기본조약비준임, 노동법개정 요구

ILO기본조약 비준임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일 오후 4시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수도권지역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거행하였다.

대책위는 이번 대회를 장충단 공원에서 열기로 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에 따라 장소를 한양대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오후2시부터 시작된 기념행사가 2시간 지연되어 오후4시부터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행사는 서울과 인천지역 노동자와의 서울지역 대학생들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가 이루어졌다.

이날 대회에서 주최측은 정부의 총액 임금제가 노동자의 자율적 단결권의 왜해, 사용자의 임금급상시점, 노사의 자율적인 교

섭권을 침해하며 규탄하고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기념대회에 참석한 2만여명의 노동자, 학생들은 본 대회에서 끝난후 평화적인 가두행진을 30분간 진행하였다.

한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는 지난 1일 독일노동자 파업투쟁에 대한 전노협의 연대 메시지를 독일노동자들에게 보냈다.

이번 메시지는 독일의 물가상승, 제도개악으로 노동자의 생활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독일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정당함을 밝히고 전노협의 지지와 연대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리빛 수화·점자 감습회 오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서울캠퍼스 봉사동아리 소리빛은 '제2회 수화·점자 감습회'를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한다.

소리빛은 감습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5시20분 수화·점자 기초 과정을 감습한다.

‘서약련’ 대동제 개최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중대서

서울지역 약대학학생회연합(이하 서약련)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중앙대 해방광장에서 대

동제를 개최한다. 이번 대동제는 제2기 서약련 발족식을 겸하고 있으며 16일 영화상영, 통일8종경기, 문화공연과 '6공의 의료실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이 있으며 17일 뒤풀이가 있을 예정이다.

서약련 의장을 맡고 있는 본교 약대학회장 채주봉(약학·90)은 지난 대동제 평가를 "화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대동제 자체의 흐름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이번 대동제에는 약대생들의 친목과 대동의 장으로 만들수 있는 행사들을 준비했다"고 대동제의 의의를 설명했다.

야구단 국제대회 참가 한국대표자격, 미국·일본등 참가

체육부 야구단은 소련 모스크바대학 초청으로 6월 중순경에 있을 국제대회에 참가한다. 모스크바대학 개교기념행사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 미국, 일본, 대만, 중국등이 참가하며 한국대표자격으로 본교 야구부가 참가하게된다.

이외에도 체육부는 10월초순경 소련 청소년 대표 야구팀을 초청해 친선경기와 야구이론을 감습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5월 하순경에 소련에서 있었던 소련모스크바대학과의 친선 야구대회에서 본교 야구부는 8전승을 거두었다.

“언론관 정립과 독자들의 관심이 필요”

— 문화일보 편집부장 홍 의(국문·71졸) 동문을 만나



최선을 다하지는 것이 제 생활 신조입니다.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자신이 맡고있는 일에 자긍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홍동문은 편집부에서만 15년이

시 업무에 두고 한자 한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대학가에서 문화일보를 종이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홍동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좋은 신문이 나오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특징인과 연관지어 그 신문은 이러할 것이더라는 식의 선입견에서 비롯된 시선이라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접해보지 않은 채

말은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상을 일해왔다. “신문이 나오기 위해선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 편집이라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중요 합니다. ‘편집인인 최초의 독자이자 마지막기자’라는 점을 항상

이해하고 잘못된 점을 그때그때 다 지적해 줄 때에 올바른 신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독자들과 많은 대화를 가지길 원한다는 홍동문은 신문사들이 대기업의 자본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과 약화되어가는 지방신문의 위상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간지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장단점이 발

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자의 올바른 언론관 정립과 독자들의 꾸준한 관심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선행될때 언론의 대기업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방신문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열릴 것이라 보고 있지만 아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신문이 그 지방에서조차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시절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싶었다는 홍동문은 결코 평범치 않은 대학시절을 보냈다. 그때의 힘들었던 경험들이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후배들에게 당부한다.

“대학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박 겉핥기식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옳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선택한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책임질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문과의 30여년, 힘들었던 점도 많았지만 후회 없는 삶이었다는 홍동문은 대학주보 천호발간을 축하하며 말을 맺었다.

〈안성모기자〉

제10회 영문 수필 및 독후감 현상공모

경희대학교 영자신문

The University Life 에서는 창간 34주년을 맞이하여 제10회 전국 English Essay & Book Review Contest를 개최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1. 모집부문 : 1. Essay 2. Book Review
2. 주 제 : 자유선택
3. 대 상 : 전국대학생(전문대생 포함)
4. 원고분량 : Typing된 16줄지(25행) 3~5매
5. 응모마감 : 1992년 5월 16일 17시 (응모원고에 응모자의 연락처 필히 명시)

6. 제 출 처 : The University Life 편집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내
7. 발 표 : 본지 1992년 6월호
8. 시상내용 : Essay, Book Review 각 부문 1등 - 장학금 30만원 및 상패 2등 - 장학금 15만원 및 상패

※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편집실 (02)961-0097, 수원캠퍼스 편집실 (0331)280-2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10th Nationwide English Essay & Book Review Contest

The University Life the English Newspaper of Kyung Hee University will hold the 10th Nationwide English Essay & Book Review Contest, in commemoration of the newspaper's 34th founding anniversary.

”

1. Field: Essay & Book Review
2. Subject: Free
3. Qualification: Undergraduate & Technical College Students
4. Manuscript: 3-5 Typed Sheets (A4 size, double space, 25 lines)
5. Deadline: 16 May, 1992
6. Place of Submission: Office of The University Life, Seoul and Suwon Campus

7. Winners Announcement: June Issue of The University Life
8. Prizes (each field): 1st Prize - Scholarship (300,000won) & Plaque 2nd Prize - Scholarship (150,000won) & Plaque

※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following telephone numbers: Seoul Campus Office - (02) 961-0097, Suwon Campus Office - (0331) 280-2139